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가 온 교 육 통 신

제 2023-81호

2023. 6. 9.

063)840-8205

-인성교육주간 학부모 교육-

♣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실천 주간 ♣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은 물론 개인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인성'이 아닐까 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잘 극복하며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바른 가치관과 내면의 힘을 지녔을 때, 즉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였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가정·학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주간'(6월 12일 ~ 6월 16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기간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 동화 보고 활동하기(1~2학년), 다도인성예절교육(3~6학년, 예절지도사에게 인사예절, 언어예절 등 일상생활 예절 및 차문화와 다도예절을 익히고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 다스리기), 월드비전 꿈엽서쓰기(전교생 중 희망학생) 등의 활동을 학급 단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바른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한 자료를 소개하니, 읽어보시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해 평소 우리 가족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른 언어 습관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어 습관 기르기-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부모님 앞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언어습관에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래 집단의 문화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고학년 학생들은 특별한 의도나 의미가 없지만 친구들이 사용하면 생각 없이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 부정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대화를 나눠 보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가 버릇처럼 자주 쓰는 욕설 또는 비속어는 없는지 대화해보고,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은 욕설의 의미와 욕설의 어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수의 욕설이 '성에 관한 부정적이거나 비속한 의미', '신체적 장애, 질병'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왜 사용하면 안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명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로 이루어지는데 감정의 뇌에 존재하고 있는 변연계는 사람의 기억·감정 호르몬을 관장합니다. 욕설의 사용은 변연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면 충동성이 강해져 욕설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 **가정에서의 올바른 단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는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고 부부간, 형제간에는 존중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존댓말을 쓰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 **바른 언어습관 정착을 위해 규칙을 정하고 실천을 독려합니다.**

게임 또는 유튜브 등 콘텐츠에서 접한 유해 언어는 없는지 살펴보고, 언어 습관은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정하고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천 약속 후 실수로 유해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 혼내지 않고, 계속 실천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응원하고 독려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시 기억해 주세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피해야 하는 말들	<p>《 열등감을 부추기는 말 》</p> <p>“너는 왜 이것 밖에 못하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이네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와 같은 말들은 자녀로 하여금 깊은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p>
	<p>《 자녀를 비꼬는 말 》</p> <p>“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네가 퍽이나 잘하겠다.”와 같이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말보다 비꼬는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을 더욱 훼손당했다고 합니다.</p>
	<p>《 억압하거나 명령 혹은 협박하는 말 》</p> <p>“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그거 안 해줄 거야.”와 같은 말은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막아 버립니다.</p>
	<p>《 부정적인 예언이나 포기를 암시하는 말 》</p> <p>“어디 며칠이나 가는지 두고 보자”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마”라는 말은 애초부터 자녀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무작정 지키지 못할 일로 치부하는 것으로 자녀의 능동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자존감을 훼손시킵니다.</p>
청소년 자녀와의 좋은 대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설교’나 ‘훈계’ 대신 10개 단어 이내의 짧은 말을 이용합니다. ■ 비난 대신 직접적인 행동 또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그건 네 잘못이다.” 등(x) / “언니를 때리는 것은 그만해라(○) ■ 눈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듣고, 몸을 기울여 고개를 끄덕입니다. ■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습니다. ■ 말대꾸나 쌀쌀맞은 대답, 위협적인 말투 대신 건설적인 태도로 얘기합니다. ■ 주제를 옮기지 말고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합니다. ■ 과거의 사안, 지나간 행동을 들추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